

# 그날, 그자리... '박제된 기억'을 '기록'하다

### 오월전사 김상집 첫 개인전...내달 5일까지 광주 메이홀

#### 5·18과 6·10 역사현장의 진실, 간절한 민주주의 염원 '한없이 또렷한, 생생하고 쟁쟁한 그날의 얘기' 담아내



김상집작가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기간 동안 도청을 지키던 전사 김상집. 그의 또렷한 사실적 시선과 장쾌한 그림 여정을 돌아보는 전시가 마련됐다.

다음달 5일까지 동구 대안공간 광주 정신 메이홀에서 펼쳐지는 '오월전사 김상집의 한없이 또렷한 기억'전이다. 작가는 지난 2년간 최후의 항쟁 연작 시리즈 '궤기'를 그려왔고 최근 완성했다. 또 지난 6년동안 그려온 작가의 모든 민주화 운동기 기록화는 우리 광주의 역사적 자산이 되고도 남는다.

이번 전시는 오월 광주정신을 계승하며 오랜날 6·10항쟁의 광주 현장을 목도하고 참여해온 작가의 치열한 인생 서사가 지어낸 우리 광주공동체의 간절한 민주주의의 염원이다.

김 작가는 취미 삼아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 붓을 들었다.

처음엔 화가에게 의뢰해 기록화를 남기고자 구술 준비를 하다가 이후 스스로 미술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2017년 오광섭 화백에게 본격적으로 사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사실화적 기법, 연마한 유희의 음영 테크닉이 돋보인다. 강용주의 사진을 든 어머니 조분순 여사, 환하게 웃는 김경남 목사, 정동년 선생 초상화, 말을 탄 의할머니, 도청에서의 결사항전을 각오하는 회의, 무진교회를 배경으로 한 강신석 목사 외 강혜영 사모의 모습이 그림으로 펼쳐진다.

비스듬히 미소를 띤 나광재 선생, 짙은 감색 한복 차림의 주형심 선생, 피흘리는 윤상원을 그린 최후의 항전, 김동원 교수, 누이 김상남, 벚꽃나무 아래서 웃음을 머금은 나선초·민태순 부부 등 그림의 주인공들은 다채롭다.

또 그의 그림엔 수많은 광주 시민들과 가족들, 최후항쟁의 날 도청 안에 있던 주인공들, 윤상원을 비롯한 최후의 전사들이 속속 나온다.

이후 6월 민중항쟁에 이르러선 조비오 신부, 지선스님, 윤기석 목사, 김재영 신부, 조아라 회장, 문정식 목사, 김경식 목사, 명노근 교수, 진관스님, 법성스님, 변남주 목사, 남재희 신부, 문병란 시인, 김승남 전남대총학 회장, 조이권 전남대 선봉대장 등이 함성소리 가득한 광장의 얼굴로 등장한다.

역사적 기록이니 만큼 두툽한 전시 도록이 제작됐으며, 신경주 전남대 명



'궤기대회'



'결사항전'

예교수의 영문번역도 참가했다. 임의진 메이홀 관장은 "그의 그림 속 주인공들은 누구 하나 눈 감지 않고 현대사를 곱진히 살아냈다. 마치 불끈 쥘 주먹과 같은 염원의 보장은 오늘 우리의 같은 눈과 잠든 심장을 깨우고도 남는다"며 "여러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이번 전시는 광주공동체의

사랑과 진실의 확인이며 전진"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상집 작가는 전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참여자치기 대표, 광주전남 6월항쟁 이사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광주지부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윤상원 평전', '녹두서점의 오월' (공저)이 있다. /최명진기자

## 전국애송시낭송대회 대상에 김윤선 씨

### 배근정 씨 금상 수상

제20회 전국애송시낭송대회에서 광주 출신 김윤선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윤선 씨는 정일근 시인의 '날아오르는 산'을 낭송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낭송가들은 그동안 준비한 시 한 편을 들고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시낭송대회에서 김윤선 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에는 이기철 시인의 '삼동편지'를 낭송한 경북의 배근정 씨, 은상은 정일근 시인의 '어머니의 그릇'을 낭송한 경남의 김옥란 씨, 신석정 시인의 '한라산은 서서'를 낭송한 광주의 박영미 씨가 수상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2022년 대상 박복숙 씨의 시낭송과 광주재능시낭송협회 전경숙의 4인의 시 퍼포먼스, 제2회 전라도사투리말하기 대회 대상 수상자인 김인자 씨의 사투리공연, 서구문화원 '시공감' 동아리의 서정희 외 6



대상 수상자 김윤선 씨(오른쪽)

(광주서구문화원 제공)

인의 시 퍼포먼스 축하공연 '사람 그리고 사람' 등이 진행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근모 광주문인협회장은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의 암기 수준이 좋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 참가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의 낭송 리듬이 일품적이었다"면서 "시낭송을 통해 듣는 이의 공감력을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최명진기자

## 보름달 뜨는 밤, 망월동 민주 열사 이야기

### 뮤지컬 '망월' 30-7월1일 광산문화예술회관

보름달 뜨는 밤, 망월동 도역에서 깨어난 영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광주뮤지컬단 다락의 창작뮤지컬 '망월'이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7월1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민주주의의 성지 5·18 국립묘지 망월동을 배경으로 한다. 한 달에 한 번 보름이 뜨는 밤 펼쳐지는 열사들의 이야기다.

뮤지컬 '망월'은 '망월동 국립묘지' 공간이 갖는 상징성에 주목하며, 이한열, 박승희, 김남주, 이병섭, 백남기, 배은심 등 5·18민주열사들을 모티브로 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건의 역사적 나열보다는 민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그들의 젊음과 청춘, 살아있었다면 치열하고 아름다웠을 그들의 삶에 집중한다.

이날 무대에는 홍은비·정해건·김세



희·성우람·한수민·최문준·김예은·김울·장성하·이송아·김은실·임남엽·정유정이 출연한다. 이들은 1980년생부터 2003년생으로 5·18을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았지만 연극을 통해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고 광주정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러닝타임은 70분이다. /최명진기자

## '민화 꽃을 피다'

### 이혜경 작가 개인전...30일까지 전남도청 갤러리

전남도는 30일까지 도청 갤러리에서 '민화 꽃을 피다'를 주제로 지역 유망 예술인 이혜경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전시 작품은 행복과 길상의 의미가 담긴 전통미술 '민화'로, 동경도(병풍) 1점, 화조도(병풍) 1점, 한국화 8점이 있다. 병풍으로 된 동경도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작품으로 거대한 궁궐과 산수가 어우러져 일대 장관을 보여준

다. 궁궐 전체, 건물, 자연, 시설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 중국과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아 동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궁궐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조선 궁중 민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 작품인 '일월오봉도', '유지연도', '일월반도도' 등 왕의 권위와 왕실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동경도(병풍)'

이혜경 작가는 한국전통문화협회에서 한국전통민화 협회를 위해 지도

에서 한국전통민화 전승을 위해 지도 강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Leisure for Diet & Relax car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740RYS

LEISURE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움 상가 2층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좁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 구함

캠코더, 카메라  
남·여 수리기사 모집  
(급여 상담 후 결정)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DVD 변환전문업체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